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식지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1~2절)

제10호 <2006.12>

발행인: 이순남 | 편집인: 정성철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 전화 02-2650-5707 | 팩스 02-2653-8891

♣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소식

◆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최종 합격자 발표

-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 학생 골고루 분포 -

의과대학은 12월 20일 M.D.-Ph.D. 복합학위과정 1명을 포함한 2007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정시(일반전형) 합격자 60명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수시 · 특별전형에서 합격한 석사과정(M.D. 과정) 16명과 함께 총 76명에 대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전체 합격자 76명 중에는 학사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석사(8명) 출신이었다. 합격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가 67명(88.1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 (10.53%), 40대가 1명(1.31%)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 구분하여 보면, 총 76명 중 국내대학 졸업자가 74명 · 외국대학 졸업자가 2명이었고, 국내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소재대학이 65명 · 지방소재대학이 9명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별 분포를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18명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서강대학교 · 경희대학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21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내었다.

학부전공별 분포를 보면 자연과학대학이 35명(46%), 공과대학이 15명(20%)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2/3을 차지하였다. 이를 계열별로 구분하여 보면, 자연계열(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자연계열, 약학대학,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이 65명(85.5%), 인문계열(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법과대학)이 10명(13.2%)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음악대학) 출신이 1명(1.3%)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순남 의과대학장은 “지원자가 모두 우수하여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상의 인재가 균형 있게 선발되었다”며 “다양한 전공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화의 울타리 안에서 여성의료계를 선도할 큰 꿈을 펼치길 바라며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사과정(M.D. 과정) 입학생은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문제 중심 학습법 · 기초/임상 통합 교육 과정 · 지역사회 연계 교육 · 의료-생명 윤리 교육 · 국제 의료 봉사/협력 · 여성 리더십 교육 등 세계화된 의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의학교육 과정을 교육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M.D.-Ph.D. 복합학위과정 입학생은 전문학위과정 2년 · 학술학위과정 3년 · 전문학위과정 2년 등 총 7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생명과학과 임상의학 분야를 통괄하고 탁월한 연구능력을 가진 우수한 의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받게 된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대상으로 2월 5일에서 7일까지 리더십캠프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며, 입학식은 2월 28일 오전 10시 목동 의학관 A동 1층 김옥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대외협력위원회 활동소식

이화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정된 금액은 총 217,000,000원입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외에 이화의대 선교 후원 기금, 대외협력기금, 각 교실 기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또 2007년 전환될 의학전문대학원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아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약정 문의 Tel: 02) 2650-5707)

<2006년 10~12월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 현황>

후원자	금 액	내 용
이순남 학장	50,000,000	대외협력기금
한지형, 우행원	30,000,000	
행림회 (의대 동문 교수)	50,000,000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주목회 (의대 재직 남교수)	30,000,000	
김도연 동문 (의학,95년 졸)	30,000,000	
남은미 교수	10,000,000	
익 명	40,000,000	
산육회 (산부인과 모임)	5,000,000	발전기금
이계영 동문 (식품영양학, 71년 졸)	1,000,000	이 화해 외 의 료 봉사 단 후원기부금
이경재 (정구영 교수 지인)	1,000,000	
계	217,000,000	

◆ 2007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달력 제작

이순남 학장이 기부한 대외협력기금 중 일부로 2007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달력이 제작되어 학생, 동창 등에게 발송되었다. 이 달력은 오구미 동창(27회)의 작품을 기증받아 제작되었으며, 이후 발전기금 모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대외협력기금으로 동대문 병원 컴퓨터실에 PC 설치

한지형, 우행원 동문이 기부한 대외협력기금으로 동대문 병원 실습학생을 위한 컴퓨터실에 PC 5대가 설치되어, 학생들이 편리하게 컴퓨터 실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기금으로 동대문 병원 마취과에 실습 기자재 3대가 기증될 예정이다.

♣ 의과학연구소 소식

◆ 의과학연구소 홈페이지 로그인 안내

의과학 연구소 홈페이지(research.ewhamed.ac.kr)로그인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TCP/IP 등록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면 된다.

DNS서버	203.255.161.103
보조 DNS서버	168.126.63.1

이 홈페이지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아이디는 교번을, 비밀번호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로그인 방식 신청서 접수 및 처리현황은 온라인으로 확인가능하다. (문의 : 의과학연구소 행정실 Tel: 02) 2650-5790)

♣ 의과대학 새소식

1. 의과대학 소식

◆ 의과대학 전체 교수 워크숍 및 송년회 개최



‘의과대학 전체 교수 워크숍 및 송년회’가 12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윤건일 의료원장, 연규월 동대문 병원장, 서현숙 목동병원장, 이순남 의과대학장의 케이크 커팅으로 시작된

의대 전체 교수 송년회는 많은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6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피부과 최혜영 교수의 기도, 이순남 학장의 인사말 후 의학전문대학원 신교육과정 개발 경과 보고(한재진 의학교육실장)와 M1 (박혜영 기초의학소위원회 위원장), M2 (홍기숙 기초임상통합소위원회 위원장), M3/4 (임원정 임상의학소위원회 간사) 및 PDS/ICM (권복규 PDS 소위원회 위원장)의 교육과정 개발 보고로 진행되었다. 이어 권복규 교수가 현재 구축 중인 학습정보센터 (LRC : Learning Resource Center)를, 한재진 교수가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설립 진행 상황을 각각 보고하였다. 끝으로 이경은 교무부장이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전체 토론으로 워크숍 및 송년회가 마무리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김윤아, 장수진 (동아리 Etude) 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여 송년회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 이화의대-일본 오사카 의대, 국제 교류 협정 맺어

이화의대와 오사카의대가 오랜 기간 협정 논의를 거쳐 2007년 1월 10일 최종 국제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서는 학생 · 교수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교육 · 연구 분야에 있어 오사카의대와의 활발한 국제 교류가 기대된다.

◆ 이화의료선교봉사단, 베트남 하노이 봉사 활동 예정

이화해외의료선교봉사단(EMC)이 2월 3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떠날 예정이다. 전문식 교수, 한재진 교수, 신상진 교수 총 3명의 교수와 함께 의료원 직원 5명, 학생 10명, 외부인 5명 등 총 23명이 이번 베트남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하노이 근교 오지에서의 일반진료 활동, 쑥손 자선 병원(Hanoi Red Cross Sunny Korea Clinic)에서의 특수진료 활동, 지역 의료진을 위한 정형외과 특강, 베트남

적십자사 및 자선병원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보건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봉사단 발대식은 2월 1일 5시30분에 의학관 A동 21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 2007년도 의사국가 시험에 95명 응시, 91% 합격

1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치러진 2007년도 의사국가시험에 재학생 87명 · 졸업생 8명을 포함한 본교생 95명이 응시하여 이 중 86명이 합격, 91%의 합격률을 나타내었다. 한산중학교(강동구 둔촌동)에서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이순남 학장, 이경은 교무부장, 성연아 국시위원장 외에도 많은 의대 교수가 방문하여 수험생을 격려했다.

◆ 기초의학전공의 지원제도 개정, 지원기회 확대

의과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현재 의과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의학전공의 전공제도의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석사학위 소지자 중 의학과 졸업 평점이 3.00이하인 경우도 석사과정 성적이 우수하고(누계평점 3.70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제청한 자는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인의 anger management’ 특강 개최

의과대학은 10월 26일과 27일에 이윤주 교수를 초청하여 ‘의료인의 anger management’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의대 전체 교수와 의학과 학생, 전공의 등 총 7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의학과 4학년 CPX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시행



의학과 4학년 87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의학관 B동 8층 PBL Room에서 CPX가 시행되었다. CPX는 환자 진료를 모의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임상 술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날 학생들은 10명 당 한 조로 무작위로 배정돼 한 사례당 12분씩 총 10개 사례로 시험을 치렀으며, 총 3일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 교수 및 의료원 동정

1) 교수 동정

◆ 신임 교수 (2006년 11월1일자)

소 속	전 공	이 름
동대문	내 과	남은미 교수
동대문	내 과	류연주 교수
목 동	내 과	김종윤 교수

◆ 퇴임 교수 (2006년 10월31일자)

소 속	전 공	교수
목 동	치 과	이승호 교수

◆ 정화순 교수, 'ABI 올해의 인물' 선정



정화순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ABI(The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로부터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현재 대한임상의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정화순 교수는 2007년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 이근 교수, 모유수유학회 초대회장 취임



이근 교수가 8월 1일 서울 아산 병원에서 열린 대한모유수유 의학회 창립총회에서 대한 모유수유학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 이승주 교수,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 선임



이승주 교수가 10월 21일 서울 위커히에서 열린 대한 소아과 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 소아신장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2) 연구원 동정

◆ 임현정 연구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임현정 연구원 (BK21 사업단 박사후과정)이 10월 27일 한국교육학회가 선정한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임현정 연구원의 논문 '2000~2005년 수리영역 성취도 변화와 학교효과의 종단적 분석'은 국가 수준에서 학업성취도의 연도별 추이를 측정학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존의 검사자료를 다양한 영역에 응용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했다.

3) 의료원 동정

◆ 동대문병원, 전국 의료기관 평가 최상위 4대병원 선정

보건복지부가 2006년 10월부터 7주간에 걸쳐 실시한 2005년도 의료기관 평가 결과 이대동대문병원이 평가 대상 병원 중 최상위 점수를 받아 4대 병원에 선정되었다.

◆ 목동병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가져

성탄절을 앞두고 이대목동병원에서는 12월 4일 오후 5시 로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윤건일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탄 트리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 이라면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하프의 대중화’를 꾀해온 연주자 광정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21일 오후 6시 이대목동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연말 연시를 맞아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멜로디를 선사하였다.

◆ 이화의료원,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이화의료원 웹사이트 (<http://www.eumc.co.kr>)가 200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웹사이트 부문 '인터페이스 대상'을 수상했다. 이화의료원 웹사이트는 지난 2004년 새롭게 개편한 후 각종 건강정보제공과 함께 고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Q&A 등으로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코너들로 꾸며져 있다.

◆ 목동병원, 어린이들 위한 목각인형 콘서트 개최



이대목동병원은 2006년 12월 1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환자 및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목각인형 콘서트를 개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번 콘서트는 마리오네트라는

이 등장 노래하고 춤추며 재롱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멋진 동심의 세계로 안내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병원에 입원중인 어린이 100여명과 보호자들이 참석해 목각인형 친구들의 공연을 즐겼다. 특히 이날 공연에 이어 요술 풍선과 여러 가지 선물도 전해져 투병중인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기쁜 하루를 선물했다.

♣ 동창회 소식

◆ 의과대학 동창회, 연구비 및 해외연수비 신청 안내

의과대학 동창회의 창립 50주년 기념학술연구회와 사단법인 학술연구재단에서 교수 연구비 및 해외연수비 혜택을 위해 연구논문 계획서와 해외연수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화의대 동창이며 전임의 이상이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예정액은 창립 50주년 학술연구회 연구비는 500만원 · 사단법인 학술연구재단 연구비는 3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출 서류는 논문 연구비 및 해외 연수비 신청서, 추천서, 이력서, 연구계획서, 초청장(해외 연수비 신청자에 한함), 재직 증명서이며 서류 양식은 동창회 홈페이지 (<http://ewhamd.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출마감 : 2007년 3월 15일

※문의: 동창회사무실(ewmedalum@hanmail.net)

Tel: 02)2650-5782, Fax: 02)2643-5260

♣ 의과대학에서 알려드립니다 ♣

<의대소식지 원고 모집>

의대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heejee77@ewha.ac.kr)

-의대 소식지는 의대 홈페이지 (medicine.ewha.ac.kr) 내 의과대학소식/뉴스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동창 주소 변경 문의 (Tel: 02) 2650-5782)

파란 하늘... 사시사철 눈이 부시게 파란 하늘이 마주쳐 부딪히는 푸른 바다랑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림 같은 바닷가에 떠있는 예쁜 배들과 간간히 지나가는 하얀 구름들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은 언어의 서러움과 생활의 정착을 생각하면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정도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UC San Diego는 3개의 병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병원은 대학의 캠퍼스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더 남쪽으로 고속도로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험실은 캠퍼스 내에 있는 병원인 보훈병원에 있었고 제가 하던 연구의 진행은 남쪽의 메인 의과대학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관계로 서류작업이 어찌나 까다롭던지 모든 안전수칙과 교육을 받는데 1달 이상 걸려 임시 배지를 달고 실험실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3개의 병원에 수시로 오가면서 검사와 진료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으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며 가끔 동대문과 목동병원을 오가며 불평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또 놀란 것은 처음에 방사선과 의사로부터 초음파 판독을 배우러 다녔는데 임시 건물인 컨테이너를 연구실로 쓰고 공사장에서 쓰는 임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도 전혀 불평이 없이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사선과 의사는 초음파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그곳에도 여전히 연구실 부족으로 인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UC San Diego 내의 Pelvic floor function and disorder group 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소화기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신경과가 함께하는 팀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팀의 팀장이었던 소화기내과 의사 Dr. Mittal의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사선과 의사로부터 모든 과정을 배우느라 그 의사가 시간이 될 때 만나야 했으므로 새벽이든 밤이든 부르는 시간에 가야 했습니다. 약속시간에 맞추어 갔다가 방사선과 의사의 이중 약속으로 헛걸음을 친 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함께 가주었던 Dr. Mittal 때문에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방사선과 MRI기계를 쓸 때는 일요일저녁 시간 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 Dr. Mittal과 저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지원자를 불러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연관된 의사들이 모여 미팅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검사를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미팅의 준비가 제 몫이었습니다. 매주 검사했던 이미지들과 검사결과들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비추고 토론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처음 미팅하는 날, 저의 영어가 오갈 데를 몰라 헤매던 기억이 가슴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들의 가닥이 잡히자 참여한 모든 의사들이 매주 준비하는 수고를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 과의 의사들이 매주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아 이를 주관하는 우리 보스는 항상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건강 지원자들과 환자들을 모집해주

는 연구 간호사와 함께 직장 항문 압력검사를 시행하고 골반과 항문 직장부위의 초음파를 진행했는데, 초반에는 연구 간호사가 모든 설명을 다해주어서 저는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분석만 했었지만 연구 간호사가 다른 분야로 가는 바람에 지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일이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영어를 이해해 보려고 눈을 뚫그랴고 뜨고 고개를 끄덕여주던 환자들이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저희는 3차원 초음파 영상으로 항문괄약근과 치골직장근을 정확히 검사하는 방법과 항문 직장압력검사로 그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미국 소화기학회에 발표하였고, 다음단계로 자체 개발한 비닐 풍선을 이용한 치골 직장근과 항문괄약근의 기능을 보는 방법으로 런던의 초음파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골반저 근육들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다양한 초음파 검사법과 생리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다음 미국 소화기학회에도 초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점심시간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넘치던 저의 동료인 중국인 의사는 저의 도시락까지 싸오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본인이 중간 보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고 제일 힘들고 귀찮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동물 실험을 주로 하는 친구였는데 동물 실험 과제가 시작되면 매일 회진을 돌아야 한다면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매일 나와서 동물들 밥을 챙기고 때로는 본인이 직접 요리해서 동물들에게 먹이는 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저랑 외모가 무척 닮아서 같은 건물 다른 실험실의 중국인들이 당연히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말로 말을 걸기도 했고 덕분에 중국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어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함께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하면서도 수시로 집으로 불러서 본인의 요리를 먹이고 싶어 했던 잊지 못할 귀한 친구입니다.

연구년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Dr. Mittal이 열어주었던 크리스마스 파티겸 환송파티에는 그동안 함께 지냈던 연구팀과 실험실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도 고생을 시키던 방사선과 의사가 함께 일했던 시간이 즐거웠다면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하프를 가져와서 캐롤을 연주해 주었고 비뇨기과 의사의 아들은 색스폰을 들고와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연구 간호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일하는 동안 모아두었던 사진과 논문 자료들...본인이 가지고 있던 예쁜 엽서들로 만든 사진첩을 선물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저의 연구년이 축소되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Dr. Mittal이 본인도 그런 선물이 받고 싶다며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미숙한 모습과 지내면서의 발전한 모습들과 추억들, 헤어짐의 아쉬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실험실에 온 첫 여의사였는데 앞으로 한국인 여의사는 무조건 환영이라는 말과 함께...

아름다운 샌디애고를 등지고 비행기에 몸을 싣자 아쉬움도 있지만 가족들 친구들 병원식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왔습니다. 항상 Dr. Mittal 이 묻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